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물 위에 바람 불고
연못에 달은 잠기네
이 맑은 맛을
아아, 즐기는 사람이 없네
-법륜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석탑불서의 모든 것
책임 상담에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법륜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7월 26일 수요일(주간) 제 28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서울 목동에 사는 불자주부 임옥희(30)씨는 사찰에 가기 힘든 평일에는 아파트 인터넷 전용선을 통해 주로 불교를 공부한다. 임 보살이 주로 찾는 홈페이지는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 강좌'(www.buruna.org). 이곳에서 임씨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테마 불경, 계율, 선어록, 기초교리 강좌, 라다크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취재기, 지대방 한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한다.

현재 국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는 '홍순지의 명상음악 불교음악', '박신영의 한국불교미술', '지산스님의 선서화', '황갑수의 불교경전, 진언모음' 등 20여개의 크고 작은 불자 홈페이지들이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물이 천차만별이지만 불자 개인의 소박한 초발심의 눈으로 불교를 보고 이를 네티즌들에게 쉽게 전한다는 점에서 모두다 '1인 1포교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색 사이트의 목록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개인 홈페이지 공간을 제공해 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백여명의 불자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마련, 보이지 않게 전법과 불교 외호에 앞장서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 제작 '1인 1포교사' 역할

수많은 교육용 사이트 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 현직 교사들이 운영하는 개인 사이트라고 한다. 이처럼 불자들이 만든 개인 홈페이지는 불교를 처음 접하는 네티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친밀성이 높아 단체 홈피이지에 뒤지지 않는 포교 효과를 얻고 있다.

수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개인 홈페이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하이홈(www.hihome.com) 하나넷(www.hananet.net) 네띠앙(www.netian.com) 슈퍼보드(www.superboard.com) 신비로(www.shinbiro.com) 채널아이(www.channeli.com) 등 무료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서비스에 들어가 클릭만 하면 홈페이지가 저절로 구축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대한불교예술원

■단청 · 탁자 법당내부 시공 · 수리 전문
■목탱화 · 영단 · 대웅전 · 단청 · 탱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지도자 자격증제 도입" "단계별 교재발간 필요"

조계종 '신도교육 체계화' 공청회서 제기

내실있는 신도교육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과 양성이 선결과제로, 지도자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신도교육 체계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단계별 교육 교재 발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는 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중앙종회 포교분과 위원, 불교대학 관계자, 각 사찰 포교국장,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교육 체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포교원이 지난해 9월 신도법을 통해 신도교육의 틀을 마련한 이후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첫 대중공사로, 신도들의 고학력 추세와 맞물려 신도교육이 종단 유지와 발전을 위한 명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신도법 제10조에 규정된 기본교육, 전문교육, 지도자 교육을 통해 신도교육을 종단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도교육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 지현스님(종회 포교분과위원)은 "현행 신도교육이 강의실 중심의 교학에 치우치다보니 이(理)와 행(行) 앞에서 불교신도들이 갈등해야 하는 괴단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신도교육 제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신도법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교육목적과 내용, 교육교재,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기관, 방법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조계종 교육원 계성스님(교육부장)은 "출가자 교육과 재가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스님은 "본사의 경우 포교국장이 당연직처럼 신도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질높은 신도교육을 위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친 지도자들이 신도교육을 맡는 게 옳다"며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또 "신도교육의 주체가 스님인지, 신도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신도교육 지도자 재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종단차원의 단계별 교육 교재를 발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포교원과 포교분과위원회는 8월 하순 신도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센터 개관
진각종 해외복지사업 본격화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19일 오후(한국시간) 스리랑카 네곰보 카타나 지역에서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복지활동에 들어갔다. 직업훈련센터 명칭은 '진짜로 하나되는 즐거움'으로 지어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각종 성초대정사와 송영오 주스리랑카 대사 등 한국측 인사들과 도단고다 직업훈련장관, 자야세나 사회부장관 등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개관 기념사를 통해 "사회직업훈련센터 개관은 부처님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 전하기 위한 진각종의 국제포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진각종과 스리랑카 정부측이 장기임대 계약을 맺어 진각복지재단의 해외지부로 운영되는 사회직업훈련센터는 3800여평의 부지에 본관과 교육관 등 5개 동의 직업훈련 시설과 최신 기종의 컴퓨터 20여대를 갖추고 있다. 9월부터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한다.

진각종은 이어 21일 오후 스리랑카 캔디지역에 있는 불치사에 한국불교총단협 명의로 비로자나불상을 기증했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치사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사찰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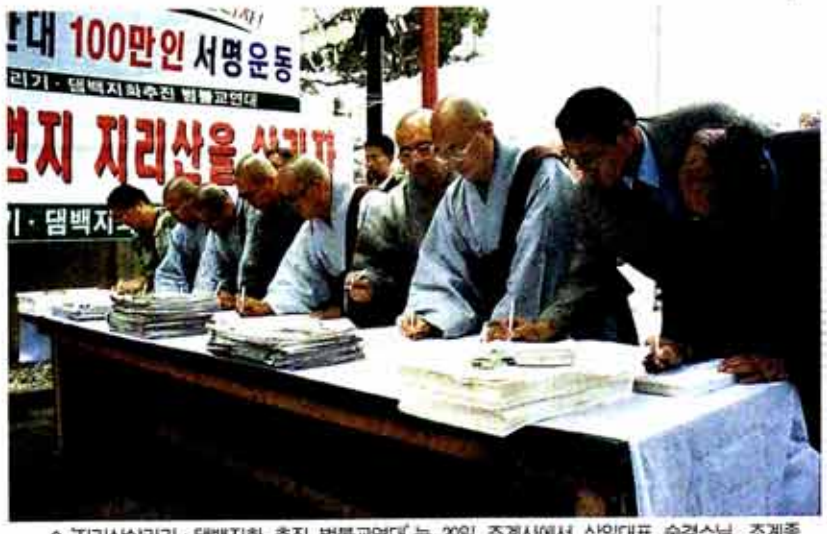
공원제도 개선 시민위원회 8월말 창립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국립공원 시민위원회)가 다음 달 말 창립된다.

조계종총무원과 제가연대, 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간사 및 실·국장들은 21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 시민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준비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준비위원들은 국립공원 시민위원회를 통해 △국가공원법 제정 △국가공원청 설립 △공원구역 재조정 △국가공원 내 문화재 보존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정부당국에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국립공원내 주민단체를 국립공원 시민위원회에 참가시키기로 했으며, 법률자문단과 연구자문단도 위촉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 '지리산살리기 · 댐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는 20일 조계사에서 상임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댐 백지화 100만인 서명운동 입제식을 가졌다. 범불교연대는 5000여개 사찰에 현수막과 서명대를 설치해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댐 백지화 100만 서명' 전개

28일 '국민행동' 발족…300여단체 동참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가칭, 이하 '국민행동')은 14일 남원 실상사에서 2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오는 28일 총선시민연대(400여개 단체 참여)에 버금가는 300여개 종교·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발족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준비위는 이날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와 환경·시민단체, 문화·산악계, 지역 대표자 등으로 11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준비위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25~30명)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준비위는 또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 지리산 살리기 운동, 낙동강유역권 댐건설 반대운동, 댐 공급과 개발위주의 수자원정책 변화촉구 운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하고 다양한 연구·홍보·정책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지리산의 문화생태역사생활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 △홈페이지 제작(사이버 서명운동)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한 100일 정진 △지리산 문화제(9-10월경) △지리산지역 종교지도자 공동기자회견(8월말) △종교·문화계 정책토론회(9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 범국민토론회(11월) △낙동강 수질개선을 촉구하는 범영남인 결의대회(12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댐건설 피해예상 사찰 258곳"

조계종 문화부 발표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는 14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96년 마련한 댐 건설 계획안을 토대로 '댐건설 예정지역(시·군 단위)의 사찰 및 문화재 현황'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중인 25개 댐 후보지에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은 258곳이며 사지(寺址·절터)는 283곳에 이른다. 또 국보 7점을 비롯, 보물 127점, 지방문화재 169점, 천연기념물 2점, 사적지 3곳 등으로 지정문화재만 318점이 직·간접 피해를 입게 된다.

댐이 건설될 경우 영향권 아래 놓이는 사찰은 경북 군위 인각사(화북댐), 강원도 인제 백담사(공수천댐)를 비롯, 경기도 여주 신륵사(여주댐), 경북 김천시 직지사(김천댐), 경북 문경 봉암사(유곡댐), 경북 안동 봉정사(길안댐), 경북 영주 부석사(송리원댐)등 유명 사찰이 적지 않다.

이들 사찰과 소장 문화재, 절터에 흩어져 있는 사적과 문화재가 수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댐에서 발생하는 안개와 습기로 인한 문화재훼손과 수행환경 악화, 도로 두절로 인한 고립 및 사찰재정난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부 이분희 연구원은 "조계종 이외의 사찰과 비지정문화재, 확인되지 않은 절터까지 포함할 경우 예상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완공했거나 건설중인 횡성·밀양·용담·탐진·대곡·남강(보강)댐을 제외한 나머지 댐에 대해서는 "댐건설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며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재경 기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101 - 교리 ·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변형 242쪽 / 값 5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102 - 교리 ·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86 변형 136쪽 값 4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201 -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월 스님 편역
86 변형 176쪽 값 4000원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202 - 생활불교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엮음
8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301 - 선(禪)편
참선요지(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302 - 선(禪)편
방편개시(方便開示)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8쪽 / 값 5500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303 - 선(禪)편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86 변형 336쪽 값 6000원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시 모음집
401 - 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종찬 지음
86 변형 282쪽 값 50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생불할 수 있을까?
501 - 문화 ·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치수 지음
86 변형 196쪽 값 45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502 - 문화 ·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지음
86 변형 19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전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